

주간 전남 농업

VOL. 245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8월 첫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총채벌레류, 기온 오르며 발생률 '경충'
정책동향 및 홍보 청년 농부의 한우 키우기, 농촌진흥청이 돕는다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순천시, 우리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적극 나서
해외 농업정보 러시아, 중국산 종자 및 씨앗이 있는 농식품 수입 중단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2 ~ 24도, 최고기온 : 29 ~ 32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4 ~ 14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건고추
- ▶ 마늘
- ▶ 양파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총채벌레류, 기온 오르며 발생률 '깡충'
- ▶ 돼지 개량 속도 낸다 '한국형 씨돼지' 9마리 뽑아

- ▶ ‘더우면 밥맛 떨어진다’... 온도상승으로 쌀 품질 낮아져
- ▶ 한우, 꼼꼼한 관리로 무더위 이겨내소
- ▶ 콩 재배로 고랭지 땅을 지켜주세요
- ▶ 전남농기원, 폭염기 시설하우스 온도저감 기술 보급

5.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2

- ▶ 청년 농부의 한우 키우기, 농촌진흥청이 돕는다
- ▶ 국민 입맛 사로잡을 컬러 보리 '흑보찰'
- ▶ 농촌진흥청, 농업인·농작물 폭염 피해 예방활동 강화
- ▶ 전남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무역박람회서 판촉
- ▶ 전남도,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첫 도입
- ▶ 콩 수매약정 체결 서두르세요
- ▶ 수벌번데기...미백,주름예방용 마스크팩 개발 박차
- ▶ 전남농기원, 담양 딸기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실시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1

- ▶ 순천시, 우리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적극 나서
- ▶ 나주시, 시설작물 염류장해 해결 기술 도입 ... 건강한 토양 만든다
- ▶ 나주시, 여름철 폭염 대비 고추 재배 관리법 홍보

- ▶ 보성군, 보성차(茶) 중국에서도 최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 ▶ 화순군, 유기농 농산물 2년 연속 경진대회 시상
- ▶ 화순군, '풍년기원' 우뚝들소리 축제 공연
- ▶ 화순군, 스마트폰 활용한 농작물 홍보 교육 '호응'
- ▶ 해남군, 일본 수출규제 발 빠르게 대응
- ▶ 장성군, 옐로우시티 맞춤형 컨설팅으로 '컬러과일' 생산 박차
- ▶ 장성군, 발 빠른 '친환경 벼 공동방제'로 효과 극대화
- ▶ 신안군, 일손 더는 고추수확운반차 지원에 주민 호응도 '최고'

7. 해외 농업정보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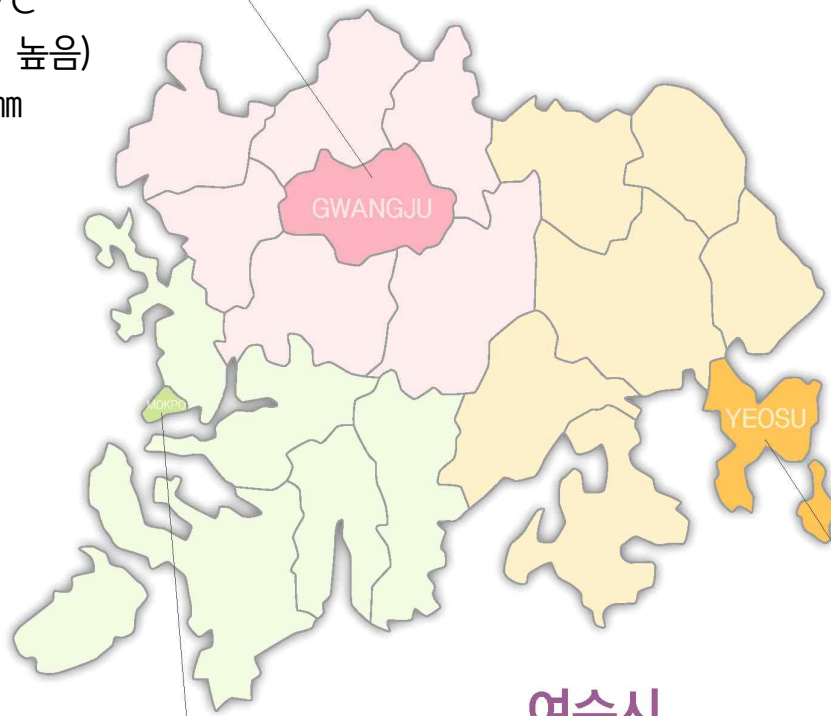
- ▶ 러시아, 중국산 종자 및 씨앗이 있는 농식품 수입 중단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8. 05. 시카고 선물거래소)

8. 농식품 빅데이터(정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5

- ▶ 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8.7℃
(평년대비 1.7℃ 높음)
- 최고기온 : 32.7℃
(평년대비 1.2℃ 높음)
- 최저기온 : 24.7℃
(평년대비 1.2℃ 높음)
- 강 수 량 : 8.3mm



목포시

- 평균기온 : 27.7℃
(평년대비 0.9℃ 높음)
- 최고기온 : 30.7℃
(평년대비 0.1℃ 낮음)
- 최저기온 : 24.7℃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5.2mm

여수시

- 평균기온 : 27.6℃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30.6℃
(평년대비 1.2℃ 높음)
- 최저기온 : 24.6℃
(평년대비 0.7℃ 높음)
- 강 수 량 : 8.5mm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 전년보다 많을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고추

재고동향 : 7월 말 건고추 재고량 평년보다 감소

- 건고추 7월 말 재고량은 평년보다 47% 적으나, 전년보다 많은 5천 300톤 내외로 추정된다.
- 7월 말 기준, 국내산 정부비축물량은 2,628톤이 남아 있다.

생산전망 : 2019년산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 2019년산 고추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되어 전년산 보다 3~5%증가한 2만9,600~3만300ha로 추정된다.
- 2019년산 고추의 생육상황은 전년 대비 ‘좋음’ 34%, ‘비슷’ 44%, ‘나쁨’ 23%로 나타나 전년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9년산 건고추 생산량은 7만 5천 톤~7만 7천 톤으로 2018년산보다 6% 내외 많으나 평년보다는 5~7%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건고추 생산량은 여름철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전망 : 8월 가격 전년 대비 약세 전망

- 햇건고추 8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19년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낮은 11,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마늘

가격동향 : 7월 깐마늘 가격 전월 대비 하락

- 7월 깐마늘 5대 도매시장 평균도매가격은 2019년산 마늘 생산량 증가로 전월보다 15% 낮은 상품 kg당 4,280원(중품 3,780원)이었다.
- 2019년산 7월 난지형 남도종 마늘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3% 낮은 2,300원/kg, 대서종은 49% 낮은 1,500원/kg 내외로 조사되었다.

저장동향 : 2019년산 입고량 전년 대비 증가 추정

- 2019년산 마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8만8천 톤이다 (통계청, 7. 19.).
-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결과, 2019년산 난지형 마늘입고량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입고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18% 많은 11만 4천 톤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농업관측본부 난지형 마늘 입고량 모형 분석결과로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1만 9천 톤으로 추정되었다.
- 2019년산 난지형 남도종 및 대서종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전년(3,000원)보다 낮은 1,800원/kg 내외로 파악되었다.

가격전망 : 8월 가격 전월 대비 낮을 전망

- 8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산지가격이 하락한 대서종 마늘 유통량 증가로 전년과 전월 대비 낮은 4,000원/kg내외로 전망된다.



양파

가격동향 : 7월 가격 전년 대비 하락

- 7월 양파 상품 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410원(중품 330원)으로 전년(740원)과 평년(880원) 대비각각 44%, 53% 하락하였다.
- 중만생종양파 생산량 증가로 전체 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하였으나, 저장업체 입고가 이루어지면서 순별 반입량은 6월 하순(887톤)보다 감소하였다.

저장동향 : 2019년산 양파 입고량 전년 대비 증가 추정

- 2019년산 양파 전체 생산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5%, 23% 증가한 159만 4천 톤이다(통계청, 7.19.).
- 저장업체 표본 조사결과, 2019년산 양파 입고량은 중만생종양파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하여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0%, 19% 증가한 73만 7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가격전망 : 8월 가격 전월 대비 상승 전망

- 8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입고량 증가로 전년(840원)보다 낮으나, 저장양파 출하가 마무리되면서 전월(410원)보다 상승한 550원 내외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08. 05.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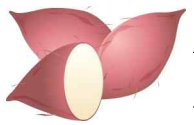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20kg	48,980	48,980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80	45,920	39,500	↑ 24.0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35kg	198,200	198,200	↑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800	177,600	155,200	↑ 27.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kg	25,600	26,600	↓ 35.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720	39,800	33,487	↓ 23.6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20kg	21,600	22,000	↓ 4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000	37,550	27,867	↓ 22.5

채소류

배추(고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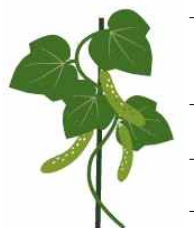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kg	8,300	7,400	↓ 4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15,300	12,100	↓ 31.4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8kg	5,300	4,800	↓ 6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900	17,450	7,100	↓ 25.4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0개	78,667	57,667	↑ 4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067	55,833	60,522	↑ 30.0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20개	35,800	18,600	↑ 11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720	16,650	21,193	↑ 68.9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30kg	535,600	560,600	↓ 1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0,600	595,000	367,333	↑ 45.8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kg	39,200	37,800	↓ 3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720	56,500	40,320	↓ 2.8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5,000	125,000	125,000	↓ 28.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20kg	9,200	8,400	↓ 3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480	14,150	18,403	↓ 50.0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20kg	27,400	27,400	↓ 3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240	42,650	34,827	↓ 21.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kg	2,040	1,800	↑ 1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32	1,825	1,742	↑ 17.1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5kg	15,200	13,600	↓ 2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680	20,550	16,980	↓ 10.5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개	18,600	19,200	↓ 2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860	24,050	16,217	↑ 14.7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kg	17,000	17,600	↓ 1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720	19,400	18,053	↓ 5.8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5kg	13,200	13,800	↑ 10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200	13,360	15,850	↓ 16.7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kg	36,000	39,400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520	36,400	42,280	↓ 14.9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5kg	76,000	72,400	↑ 11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3,760	35,700	50,767	↑ 49.7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kg	42,000	42,000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720	42,000	43,133	↓ 2.6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0g	8,483	8,171	↑ 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138	7,951	7,456	↑ 13.8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kg	5,121	5,075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50	5,111	5,229	↓ 2.1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30kg	502,600	502,6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600	497,600	525,533	↓ 4.4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2kg	13,000	13,000	↓ 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200	14,500	13,117	↓ 0.9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2kg	6,800	6,600	↓ 4.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600	7,100	7,357	↓ 7.6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00g	1,869	1,913	↓ 1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39	2,163	2,148	↓ 13.0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30개	5,034	5,063	↑ 9.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68	4,587	5,758	↓ 12.6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8/5)	1주일전 (7/29)	전년대비	
1L	2,616	2,616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6	2,528	2,541	↑	3.0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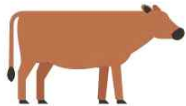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8. 05.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42	5,577	5,654	↓ 0.6	↓ 2.0
거세	6,756	6,791	6,476	↓ 0.5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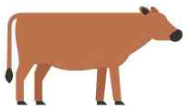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82	3,337	3,049	↓ 1.6	↑ 7.6
수	4,082	4,173	4,025	↓ 2.2	↑ 1.4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059	3,162	3,64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3	↓ 16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56	468	22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6	↑ 100.9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48	362	43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9	↓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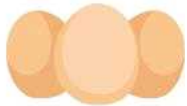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98	1,002	1,8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9.6	↓ 39.0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874	917	90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7	↓ 3.3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3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7.1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총채벌레류, 기온 오르며 발생률 ‘깡충’

- 고추 재배지 조사 결과, 포획량 한 달 사이 5배 이상 늘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고추, 토마토, 상추, 국화 등에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총채벌레는 1차적으로 과실 표면과 잎에 해를 입혀 기형과일을 유발하고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2차로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TSWV) 등을 옮겨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추 6농가와 국화 1농가, 토마토 3농가에서 총채벌레 발생량을 조사했다.
- 고추의 경우, 5월에 꽃당 발생률이 거의 없었으나, 6월이 되면서 평균 13.2마리로 늘었다. 트랩(덫)당 포획량은 5월 평균 211.1마리에서 6월에는 1219.1마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총채벌레로 매개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TSWV) 피해로 얼룩 증상의 과실 발생도 늘었다.
- 토마토와 국화의 경우, 5월 재배가 한창이던 토마토 재배지에서는 트랩당 평균 15.2마리의 총채벌레가 잡혔지만, 7월 재배를 시작한 국화 재배지에서는 트랩당 237마리가 잡혀 5월 토마토 재배지보다 발생률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 이처럼 하루 평균기온이 오르면 총채벌레 생육이 빨라지며, 세대기간(수가 증식하는 데 드는 시간)이 짧아져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 여름철 총채벌레가 발생하면 성충(어른벌레)이 주로 서식하는 꽃과 잎을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방제 약제는 4~5일 간격으로 2~3회 꼼꼼히 뿌리고, 총채벌레 번데기가 서식하는 땅 부위에도 약제를 뿌려야 한다.
- 작물이 생육하는 이랑 이외 토양은 검정 비닐 혹은 부직포로 멀칭(바닥덮기)을 하면 번데기 발육을 억제할 수 있다. 총채벌레는 서식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방제 약제를 뿌릴 때는 노출된 고추밭 주변 잡초에도 함께 약을 줘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 총채벌레류의 저항성 발달을 지연시키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작용 기작이 다른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아세타미프리드(acetamidprid), 스피네토람(spinetoram) 3종을 교차해서 뿌린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병렬 과장은 “고추, 토마토 등 가지과 채소 작물에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를 효과적으로 방제해 총채벌레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매개하는 바이러스병도 막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돼지 개량 속도 낸다 ‘한국형 씨돼지’ 9마리 뽑아

- 돼지개량네트워크, 어미쪽 씨돼지 공유 늘려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019년 상반기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유전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씨돼지 9마리를 선발했다.
- 새로 뽑은 씨돼지는 아비 쪽으로 두록 3마리, 어미 쪽으로 요크셔 4마리와 랜드레이스 2마리다.
- 이번 씨돼지 선발은 한배 새끼 수(산자수)를 늘리고, 이 형질에 대한 유전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어미 쪽 씨돼지의 비중을 늘렸다.
- 어미 쪽 씨돼지는 생존 새끼 수에 대한 유전능력(육종가)이 랜드레이스의 경우 0.6마리, 요크셔의 경우 1.75마리다.
- 아비 쪽 씨돼지는 90kg 도달일령의 유전능력(육종가)이 평균 보다 9.4일 빠르며, 등지방두께의 표현형 검정성적은 평균 11.73cm로 나타났다.
- 새로 뽑은 씨돼지는 돼지인공수정센터입식돼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의 씨돼지 생산에 활용할 예정이다.
- 돼지개량네트워크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각 농장이 보유한 우수 씨돼지를 선발·공유·평가해 유전적 연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한국형 씨돼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사업 관리와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사업 추진과 능력 검정을 맡고 있다. 또한 17개 씨돼지 농장과 돼지인공수정센터 2곳이 참여하고 있다.
- 돼지개량네트워크는 올해 하반기에도 씨돼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더우면 밥맛 떨어진다’... 온도상승으로 쌀 품질 낮아져

- 농진청, 벼 이앙시기 조절로 쌀 품질 유지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쌀 품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 우리나라의 여름은 지난 100년간 19일이 길어졌으며, 벼 재배 기간의 온도는 과거 10년 대비 최근 10년간 0.4~0.5℃ 높아지고 있다.
-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는 약 3일 정도 앞당겨졌다. 벼가 익는 시기에 적합한 온도를 벗어날 확률도 37.5%에서 50%로 증가했다.
- 벼가 익는 기간(벼 이삭이 나온 후 40일간)의 평균온도는 22℃가 가장 좋으며, 이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벼가 제대로 익지 못해 쌀의 품질이 나빠진다.
- 온도가 1℃ 오르면 밥쌀용 쌀의 외관품질은 2~3%, 밥맛은 6% 나빠진다. 특히 흑미의 경우 온도가 1℃씩 증가할 때마다 현미 내 안토시아닌 함량이 약 10%씩 감소한다.
- 농촌진흥청은 벼 재배와 기상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벼가 최적온도에서 익을 수 있는 지역별 최적 이앙시기를 밝혀냈다.
- 최적 이앙기는 과거에 비해 5일 정도 늦어졌으며, 중부와 산간지방, 남부해안 지역 모두 변동될 것으로 예측됐다. 벼 이앙 시기 조절로 벼가 익는 기간 동안 고온을 피하면 쌀 품질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한우, 꼼꼼한 관리로 무더위 이겨내소

- 소화 잘 되고 영양 높은 사료 먹이고, 축사 온도 낮춰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한우 먹이와 환경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 소 호흡수는 환경 온도가 25도(℃) 이상 오르면 크게 늘어난다.
- 사료를 소화하는 동안 몸 속(되새김 위)에서 나는 발효열로 체온이 올라가 사료 먹는 양이 준다. 몸에 저장된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함에 따라 영양소 불균형과 부족현상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비육우(고기소)는 체중이 줄고, 번식우(암소)의 수태율이 낮아지는 등 생산성이 저하된다.



▲ 개방형 축사

-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가 좋아하고 영양가가 높은 사료를 먹이고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한다.
- 비육우는 소화하기 쉬운 양질의 조사료와 농후사료 위주로 주고, 단백질과 에너지 등 영양소 함량을 높여준다.
- 번식우의 경우, 번식 활동 등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비타민과 무기물 등을 먹인다.
- 송아지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므로 설사병이나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한다.

- 수분 흡수율이 좋은 깔짚을 축사 바닥에 깔아주고, 소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항상 마실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먹이통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 소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송풍기와 물 관리 시설을 이용해 축사의 온도를 낮춰야 한다.
- 원치커튼을 개방해 사면이 트이게 하고, 송풍기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틀어 환기시킨다.
-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로 지붕에 물을 뿌리거나 안개 분무 시설을 이용하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지붕이 투명하거나 비닐하우스 형태인 축사는 그늘막으로 덮어 빛을 가려주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한우연구소장은 “가축의 사료섭취와 이상행동 등을 잘 살피면서 폭염 극복을 위한 기본 사양관리에 충실해야 한다.”며 “특히 축사를 깨끗하게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사육환경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콩 재배로 고랭지 땅을 지켜주세요

- 지면 노출 적어 빗물로부터 흙 유실 줄이고, 토양은 비옥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경사가 심한 고랭지에 콩을 재배하면 흙의 유실을 줄이고, 토양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작지의 흙은 작물을 지탱해주거나 다양한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경작지의 흙이 빗물에 떠내려가면 다시 채우거나 비료 투입 등 추가 비용이 들고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한다.
- 고랭지는 우리나라 여름배추의 주산지로서 70% 이상이 경사발생(경사도가 1.15° 이상인 경작지)이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해 흙이 유실되기 쉬운 환경이다.
- 감자, 여름배추 재배는 흙을 보호하는 기능이 약하다.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는 지속적으로 흙이 유실되면서 겉흙에 자갈이 10~50% 드러나는 등 토양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 콩은 다른 작물에 비해 지면 노출이 적어 빗물로부터 흙을 보전할 수 있고,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 농촌진흥청은 토양유실예측공식을 이용해 7~30%의 경사지에서 콩을 재배 했을 때와 감자, 배추를 재배 했을 때 유실되는 흙의 양을 1년간 비교했다. 그 결과, 콩 재배 시는 36.7%에 그친데 비해 감자, 배추는 67.8%가 줄어들었다.
- 콩 재배 시 감자, 배추를 연속 재배하는 것 보다 약 1.8배 높은 미생물활성(microorganism activity) 토양 미생물활성을 보여 토양환경 개선 효과도 컸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폭염기 시설하우스 온도저감 기술 보급

- 여름철 시설하우스 관리 '공기순환빛가림'중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하우스 온도저감 기술 보급에 팔 걷고 나섰다.
- 온도저감 기술은 시설하우스 내부온도를 낮추어 고온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하는 관리 방법으로 공기순환 팬 및 차광(빛가림), 안개분무 시설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 그동안 여름철 하우스에서는 한낮에 환기를 해도 40℃ 가까이 온도가 올라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개화와 수정 불량, 광합성 저하 등의 생육장해를 입어 왔다.
- 이번에 보급한 기술은 시설하우스 내에 안개분무시설, 차광막, 공기순환 팬 등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하나로 묶어 농가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 지난해 광양시 상추 농가에 안개분무시설과 공기순환 팬을 적용한 시범 사업추진 결과 고온기 시설 내부 온도를 4~5℃ 낮춰 설치 전보다 생산성은 10%, 경제성은 1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온기 적정 온도 관리로 7~8월 여름 상추 생산성이 20% 증가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시설하우스 작물의 생육장해 예방을 위해 온도 저감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을 보호하고,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청년 농부의 한우 키우기, 농촌진흥청이 돕는다

- 평창지역 초보 한우농가 대상, 맞춤형 종합 교육 실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31일 한우를 사육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우 종합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가 지역 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평창지역 축산농 2세대와 한우 사육에 처음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 등이 참여했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하는 한우 종합기술 교육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한우농가에서 우수한 축군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우 개량과 번식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영양·사양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 한우연구소의 암소 실습축을 대상으로 자가 인공수정 교육이 이뤄졌으며, 송아지 설사병 등 질병 예방과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 이번 교육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 이은종씨는 "한우 사육 전반에 대한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실습까지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민 입맛 사로잡을 컬러 보리 '흑보찰'

- 농진청, 국내 최초 개발 검정 찰성 쌀보리 '흑보찰'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향산화 물질이 풍부한 검정색 찰성 쌀보리 신품종 '흑보찰'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컬러푸드의 건강기능성 효과가 알려지면서 색깔 있는 보리 품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흑보찰'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검정 찰성 쌀보리다. 기존 메성 검정보리에 비해 찰기가 있어 밥맛이 부드럽고 혼반용 및 가공용으로 적합하다.
-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함량은 같은 검정보리인 메성 쌀보리 '흑누리'에 비해 각각 1.9배, 1.4배 정도 많다.
- 기존 검정보리보다 쓰러짐에 강해 재배안정성이 높으며, 수확량은 10a당 402kg정도로 우수하다.
- 재배할 때는 질소질 비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흰가루병 발생이 많은 지역이나 물 빠짐이 나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흑보찰' 종자는 올해 8월부터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신품종이용촉진사업과 연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615)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이점호 과장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건강과 입맛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흑보찰'과 새롭게 보급되는 다양한 보리를 통해 농가소득은 물론 보리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인·농작물 폭염 피해 예방활동 강화

- 온열질환 예방 요령 농작물 폭염피해 예측 정보 제공...현장기술지원반 운영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장마가 끝난 뒤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와 농작물·가축의 폭염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등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폭염 시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한 정보를 온·오프라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알리고 있다.
- 또한 시군별 주요 농작물 7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 수박)의 폭염피해 발생 예측정보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제공해 영농기술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밖에도 토양유효수분을 기준으로 전국 166개 시·군의 밭작물 가뭄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업기상정보서비스’, ‘농사로’, ‘농업가뭄관리시스템’ 등 4개의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 한편 농작물 병해충과 농작물 시들음, 과수 일소(햇볕데임)피해, 가축 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기술지원반을 꾸리고 예방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현장기술지원반은 높은 온도에서 발생이 활발해지는 진딧물, 총채벌레, 탄저병, 무름병, 역병 등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방제와 관리 방안을 중점 지도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 친환경농산물, 유기농무역박람회서 판촉

- 8월 1~3일 26개 업체서 150여 품목 홍보해외 바이어 상담 -

- 전라남도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8회 2019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에서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에 나선다.
- 박람회 참가 업체는 보성 우리원 등 26개 친환경농업 단체 및 업체다. 유기농 쌀을 비롯해 특산품인 버섯, 싹, 단호박, 비파, 모링가 등 150여 품목을 전시홍보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지자체, 친환경 인증기관, 친환경유기농산물가공식품 업체 등 전국 360여 기관업체가 참가한다.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또한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귀농·귀촌 체험학습박람회, 서울발효식문화전이 동시에 코엑스에서 열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 특히 전남에서 생산한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현장판매는 물론 친환경농산물 수출을 바라는 전남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홍콩 등 7개 나라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첫 도입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지역화폐 활용 지역 선순환경제체제 기대 -

- 전라남도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천122명이다.
- 이 가운데 농어업외 소득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 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라남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규모화·기계화·현대화 위주의 농업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농어촌의 빈곤층을 더욱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 차원에서 공익수당을 도입, 이를 해소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해 향후 국가정책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히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 특히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소비토록 유도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선순환 경제체제 정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 여기에 직불제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농지·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 농업 실천,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제로화 참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토록 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대표적 농도인 전라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처음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쌀 고정직불금과 같이 면적 기준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업정책”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콩 수매약정 체결 서두르세요

- 전남도, 16일까지 기간 연장...지역농협과 약정해야 수매 가능 -

- 전라남도는 올해 콩 수매 약정 신청 기한을 당초 7월 말에서 8월 16일로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 전남지역 콩 수매 약정 신청 확보 물량은 7천269t이다. 하지만 7월 말 현재까지 실제 체결 물량이 3천877t이어서 오는 16일까지 추가 약정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 그동안 전라남도과 농협은 콩 재배농가가 생산한 콩에 대해 전량을 수매해 주기 위해 농가와 농협 간 약정을 체결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영농철로 바쁜 농민 상당수가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 콩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콩을 재배한 농가도 빠짐없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콩 수매는 농협에서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약정 체결한 콩 전량에 대해 이뤄진다. 가격은 지난해 1등 기준 kg당 4천200원이었으나, 올해는 특등규격을 신설해 4천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 홍석봉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약정체결 한 콩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므로, 판로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며 “아직 약정 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농협을 찾아 약정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수벌번데기...미백,주름예방용 마스크팩 개발 박차

- 서양종 꿀벌 이용 화장품으로 화려한 변신을 꾀하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원개발을 위해 서양종 수벌번데기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주름예방을 위한 마스크팩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서양꿀벌의 수벌은 일벌보다 체구도 크고 무게도 2배 이상 나가며, 번데기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여왕벌과 교미역할만 할 뿐, 일은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수벌이 식용곤충으로 유망한 곤충임이 인식되고, 영양학적으로 3대 필수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각종 아미노산 및 무기물을 함유하여 성장기 아동, 청소년 및 근육량이 적은 노인을 위한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곤충으로 평가 받고 있다.
- 또한 이미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를 이용한 통조림이나 수벌환 등으로 가공하여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화장품 소재로 에센스나 수분크림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초강목, 신농경초본 등에서도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 전남농기원 곤충잠업연구소는 그동안 수벌번데기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하여 탈모완화에 도움이 되는 두피제품(샴푸, 두피토닉)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피부미용 활성평가를 통해 미백, 주름개선 등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미백과 항주름 효과를 겨냥한 마스크팩 개발에 나섰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담양 딸기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실시

- 지역 명품 담양딸기 수출확대 농진청, 전남도, 담양군 힘 모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역 수출 명품 딸기 확대를 위해 담양군 일원에서 육묘기에 발생하기 쉬운 병해충 방제 등 건전묘 생산을 위한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실시하였다고 2일 밝혔다.
- 이 번 딸기육묘 전문 컨설팅은 농촌진흥청과 전남농기원, 담양군이 함께 딸기 정식을 앞두고 육묘기 막바지 딸기 묘 생산을 위해 전문 컨설턴트 및 농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묘의 궁극증과 해결책을 위해 현장감 있게 추진하였다.
- 아울러 이 날 컨설팅에서는 국·내외 농산물 시장의 변화 인식과 함께 지역 명품「담양 딸기」의 수출 확대 방안 등 농가 조직화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명품 생산과 수출을 다짐하는 계기되었다.
- 특히 올해 홍콩과 태국에 27톤을 수출하여 2억8천만 원의 소득을 올려 담양 딸기의 우수성을 알린바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서종분 자원경영과장은“전남 딸기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품종 건전묘 보급부터 품질 균일화 등 수출업체 발굴까지 농업 경영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순천시, 우리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적극 나서

- 토종농산물을 통한 농가 소득에 기여 -

- 순천시에서는 우리 토종 농산물 종자의 체계적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 순천시는 지난해 2월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산농가, 로컬푸드, 순천대학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관내 읍면동 토종종자 보유농가와 5일 시장 등을 찾아 토종농산물 종자를 수집했다. 현재 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 중인 채종포에는 호박, 깻잎, 갓, 노각등 50개 작목, 150품종의 다양한 우리 토종농산물이 증식되고 있다.
- 올해 가을에는 채종포에서 얻어진 종자를 올해 가을부터 토종농산물 생산농가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 순천시 관계자는 “우리 토종농산물의 생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화마을도 조성할 예정이다”며 “소비 촉진을 위해 음식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토종농산물 전용판매대를 운영해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순천시



나주시, 시설작물 염류장해 해결 기술 도입 ... 건강한 토양 만든다

- 세지 멜론 등 시설채소 3ha면적 ‘킬레이트제’시범사업 추진 -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최근 시설재배농업의 큰 장애요인인 하우스 내 토양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을 도입,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염류장해란 시설하우스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쓰이는 비료가 축적되어 작물 생육을 저하시키는 현상으로, 심하게는 고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 킬레이트제는 화학물질로서 토양 속 염류장해의 원인 성분인 축적된 칼륨, 칼슘, 마그네슘, 미량원소 등과 결합하여, 작물이 이들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 근처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킬레이트제 활용기술은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용방법이 간편하고 비료 사용량을 크게 줄이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시설재배분야 관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세지면은 멜론 주산지로서 30여년의 재배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오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겨울철 멜론 생산량의 70% 차지하고 있다. 시는 멜론, 고추 등시설재배지 3ha면적에 킬레이트제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그동안 멜론을 한차례 수확한 후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태양열 소독 등으로 건강한 토양 만들기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는데, 킬레이트제 기술을 도입하면 이러한 노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나주시



나주시, 여름철 폭염 대비 고추 재배 관리법 홍보

- 고온 지속 시, 대비책 당부 ... 병충해 바이러스 사전 예방 중요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고추재배 관리법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나섰다.
- 시에 따르면, 여름철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역병, 탄저병, 흰비단병과 담배나방을 비롯한 총채벌레와 응애류의 미세곤충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다.
- 고온이 지속되면 칼슘 결핍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비료 흡수 부족으로 생육부진, 조기착색에 따른 상품율 저하, 낙과, 수정불량, 착과부진, 식물체 수분 손실로 인한 생장점 부위위축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는 먼저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활용해 토양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 이후, 짚, 풀, 퇴비 등을 이랑에 피복, 토양 수분 증발 및 지온 상승 억제, 적정량 웃거름 적기 살포, 고온성 병충해 방제, 후기 생육촉진을 위한 고추 적기수확 등이 중요하다.
- 바이러스는 일단 감염이 되면 치료가 되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발병되는 즉시 그 식물체는 제거해야 한다.
- 칼슘결핍과 같은 생리장해를 받은 과실 또한 즉시 제거해, 다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고, 식물체가 연약해질 때는 염화칼슘 0.3~0.5%, 4종복합비료를 7~10일 간격으로 2~3회 엽면시비로 회복해주어야 한다.

*출처 : 나주시



보성차(茶), 중국에서도 최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 제1회 중국(일조) 국제 차 박람회에 일조시의 초청을 받아 보성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일조시가 3대 해안 녹차도시인 보성군과 일본 시즈오카, 중국 일조시를 초청해 개최되었으며, 해안 녹차 도시 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 보성군은 박람회에서 보성 홍보관을 운영하며 박람회에 참석한 중국인은 물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보성 차의 우수성과 녹차수도 보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 국민대 유양석 교수는 해안녹차 포럼에서 보성녹차 브랜드 발전과 해안녹차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했으며 일조시와 보성군, 일본 시즈오카 차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협력과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보성 차 브랜드 전략, 보성관광 등에 관한 열강을 펼치기도 했다.
- 군 관계자는 “박람회에서 중국 차(茶)가격을 조사해본 결과 중·상품의 경우보성차가 중국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아 프리미엄라인으로 접근하면 중국차와도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 한편, 녹차수도 보성군은 2008년부터 ‘군수품질인증제’를 도입해 명품녹차 양산 및 차관련 상품의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성 계단식 전통차농업시스템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등재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주지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보성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보성군



화순군, 유기농 농산물 2년 연속 경진대회 시상

- 한계수 씨 ‘유기농 단호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상 수상 -

-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암면 유기농 농가 한계수 씨가 삼성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2019’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 상품 경진대회(채소류 부문)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장상을 받았다.
- 유기농 단호박으로 한계수 씨가 수상해 화순 지역 유기농 농산물이 2년 연속 상을 받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18년에는 화순군 최초로 노상현 씨(유기농 복숭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 이번 경진대회에는 곡류·과일류·채소류·가공품 4개 부문에 총 306점이 출품됐다. 친환경 농업 관련 정부 기관·단체·유통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1차 심사, 소비자 평가와 선호도 평가로 순위를 결정했다.
- 한계수(63) 씨는 2002년 화순에 귀농해 가톨릭농민회에서 활동하며 유기 재배를 시작해 2009년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현재 아들 한우석 씨와 유기농으로 작두콩, 단호박, 마늘, 벼, 육계 등을 재배하고 있다. 2019년 한계수 씨는 1.3ha, 한우석 씨는 1.2ha를 유기인증 받았다.
- 군 관계자는 “군이 유기농 재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유기농가의 도우미가 되어 친환경 자재 지원, 친환경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화순군



화순군, '풍년기원' 우봉들소리 축제 공연

- 2일 오전 화순 춘양면 우봉리 우봉마을 들녘에서 신명 나는 우봉들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 이날 우봉들소리 공연에 최형열 화순군 부군수,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주민과 관광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풍년과 태평성대를 기원했다. 우봉들소리는 논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노동요다.
- 이날 공연은 네 마당인 초벌매기 더덜기 타령, 한벌매기 세월이 타령, 두벌매기 난초타령, 만들리 양산도 타령을 이뤄졌다.
- 우봉마을 주민들은 직접 논에 들어가 풀을 메는 등 들소리를 부르며 농사를 지으며 우봉들소리를 공연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 주민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는 '논 고사'를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 우봉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전통문화인 우봉들소리를 계승해 마을축제로 발전시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축제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 최형열 화순군 부군수는 공연을 지켜보며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마을공동체를 이뤄 멋진 마을 축제를 연 주민 여러분께 고맙다”며 “문화재인 우봉들소리를 전승,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우봉들소리는 2013년 8월 전라남도 무형 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됐다.

*출처 : 화순군



화순군, 스마트폰 활용한 농작물 홍보 교육 ‘호응’

- SNS 통해 농업인이 직접 만든 카드뉴스, 동영상 등 홍보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홍보를 위한 ‘농업인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운영했다.
- 군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농작물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위탁해 전문 교육을 진행했고, 교육은 숙련된 강사들과 알찬 커리큘럼으로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농업인 20여 명이 참여했다.
- 교육생들은 사진에 대한 구도, 앵글, 조명 활용 방법 등 전문적인 촬영 기법을 교육받았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교육은 진행됐다.
- 특히, 사진 촬영을 실습할 때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복숭아, 옥수수, 가지 등의 농작물로 촬영을 진행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 교육생들은 직접 만든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 홍보물을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배와 출하 소식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에 참여한 춘양면 김재봉 씨(69)는 “평소 복숭아와 포도 농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사진을 찍어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이번에 배운 촬영과 홍보 방법을 활용해 내가 키운 과일들을 직접 홍보해보겠다”고 밝혔다.

*출처 : 화순군



해남군, 일본 수출규제 발 빠르게 대응

- 수출규제 애로센터 설치, 관내 기업 피해신고 등 지원 방안 모색 -

- 해남군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라 관내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 해남군은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곧바로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갖고, 5일부터 군 경제산업과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기업 피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 해남군 관내 제조업체수는 376개소로 식료품 제조를 제외하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화학물질·기계 관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다.
- 군은 옥천농공단지 등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세한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애로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 해남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도 애국입니다”를 주제로 일본제품을 대체할 국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해남사랑상품권을 통해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범 군민적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 명현관 해남군수는 “일본 수출 규제 애로센터를 설치해 기업의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기업 운영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남군



장성군, 옐로우시티 맞춤형 컨설팅으로 ‘컬러과일’ 생산 박차

- ‘칼라프루트’ 재배농가 찾아가는 컨설팅...생육상황 진단 및 재배기술 전수 -

- 장성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샤인머스켓, 레드향 등 컬러과일 재배농가를 찾아 개인별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컨설팅은 장성군이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칼라프루트’ 신규 재배농가 50명을 대상으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해 이뤄졌다. 제주도 레드향 전문가와 충북 옥천 포도전문가, 과수담당 지도사는 재배 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농장을 방문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 농장 생육상황에 맞는 재배기술을 전수했다.
- 장성군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신소득 유망작목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칼라프루트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다. ‘칼라프루트’는 기존 과일과는 다른 색, 맛, 식감으로 주목 받는 색다른 과일이다.
- 군은 가격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는 사과, 단감 등 기존 과일에도 새로운 컬러마케팅 컨셉을 적용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샤인머스켓 20ha, 노란사과 40ha, 국내단감 50ha, 아열대과수 10ha 등 총 4품목 120ha규모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 육성 중에 있다.
- ‘칼라프루트 프로젝트’는 새로운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우스 또는 과수원 시설을 활용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작물을 유망 품종으로 갱신한다는 점에서 다른 과수육성사업과 차이가 있다.

*출처 : 장성군



장성군, 발 빠른 ‘친환경 벼 공동방제’로 효과 극대화

- 방제비용 전액 지원, 적기 방제로 먹노린재 등 병해충 발생 사전에 막아 -

- 장성군이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를 적기에 추진하여 병해충 예방에 특효한 효과를 거뒀다.
- 장성군은 올해 총 3회에 걸쳐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비 1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방제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친환경 벼 재배단지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드론과 광역방제기를 사용해 친환경 생물약제를 살포하여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 벼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매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장성군은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삼계면 상도단지를 포함한 32단지 467ha 면적의 ‘1차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 특히 이번 공동방제는 타 시군의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먹노린재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성군은 타 시군보다 10여 일 정도 앞당긴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장성군은 남은 2회의 공동방제도 적기에 실시하여 병해충 사전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병해충 예찰과 현장지도 강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출처 : 장성군



신안군, 일손 더는 고추수확운반차 지원에 주민 호응도 '최고'

- '고추농사, 편하게 지으세요' -

- 고령 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고추재배농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고추수확운반차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전남 신안군은 금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84농가에 총 562대를 보급하였다.
- 신안군에 따르면 압해읍의 최모씨는 “장시간 쪼그려 앉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고추를 수확하느라 작업이 끝나고 나서는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웠는데 고추수확운반차가 보급되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업인과 소통하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편이장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살 만한 신안이 되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신안군



러시아, 중국산 종자 및 씨앗이 있는 농식품 수입 중단

- 러시아 연방의 농림 식품 검역본부는 2019년 8월 10일부터 중국산 종자 및 씨앗이 있는 농식품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중국 측이 검역상 오염의 위험이 있는 농식품을 러시아로 계속해서 운송했기 때문에 내려졌다. 2018-2019년도에 이미 48번의 검역 대상이 발견되었다.
- 러시아 당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중국 농림 식품 검역본부에 공식 서면을 보내고 농식품 생산, 저장 및 포장 장소에 대한 전문가에 자문과 검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중국 측에 6차례 회신했다고 밝혔으나 검사는 수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관계자는 중국 측과의 협의 및 농식품 검역 검사를 시행한다면 러-중간 무역 문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자는 1990년대 이래 중국으로부터의 제품 인증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농식품 제품 공급 국가 중 하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은 러시아로 424,000t, 423만 달러 상당의 과일과 견과류를 수출했다. 이 기간 동안 129,000톤의 사과, 39,000t의 배, 19,600t의 복숭아, 7,400t의 포도도 수출했다. 이 외에도 작년 중국에서 475,000t의 야채가 운송되었다. 이 중에는 94,000t의 양파와 마늘, 88,000t의 토마토, 53,000t의 감자, 47,000t의 당근, 25,000t의 오이도 포함된다.
- 시사점
 - 최근 러시아의 금수 조치를 포함하여 러시아가 다양한 이유로 타국 신선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자국 농업 생산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검역 및 농식품 관련 이슈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8. 05.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하락세를 보인 후 기술 매수 및 환매수로 인해 급등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3.2%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최근 하락세에 이어 금요일 기술매수 및 환매수로 급등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7%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1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염가매수 및 환매수로 상승했다. 올 봄 유례없는 파종 지연을 초래한 폭우에 이어 미국의 농작물 전망에 대해 무역업자들은 여전히 불확실해 한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4%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금요일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환매수와 염가매수를 보이며 2개월여 만에 최저가에서 소폭 상승했다. 세계 1위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미국산 작물 수입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은 대두 판매가 어려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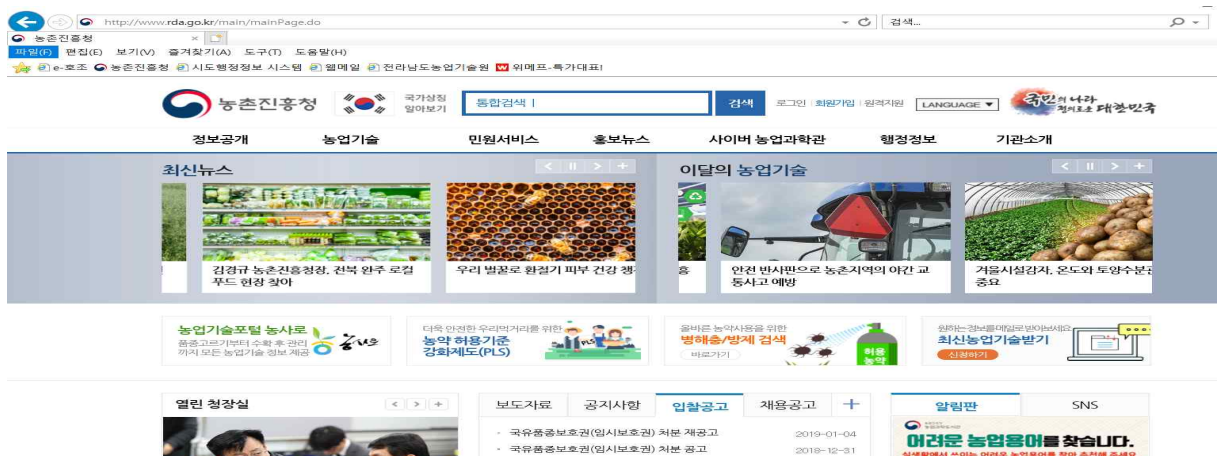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사에 필요한 정책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책홍보에서는 업무계획, 분야별 정책, 정책자료, 디지털도서관, 청탁금지법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업무계획은 2019, 2018, 2017년도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정책에서는 농촌, 농업, 식량, 국제, 축산, 농생명, 유통, 식품, 방역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촌분야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지원, 농업인 복지증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경관보전직불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 농업분야에서는 농지연금, 귀농귀촌, 농지은행사업,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 식량분야에서는 쌀 목표가격제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
 - 국산분야에서는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말산업육성 지원, 축산계열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개량지원 등
- 정책자료는 등록일자와 주제어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사에 필요한 정책동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 관측&동향, 글로벌정보, 열린마당, 연구원소개, 정보공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연구정보에서는 연구보고서, 학술지(농촌경제), 세미나·토론회 자료, 농정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측&동향에서는 농업관측정보, 임업관측정보, 농림어업고용동향분석, 농정동향,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관측정보에서는 주요 농축산물의 재배(사육) 가격 동향 및 전망 자료를 매월 제공하여 농가경영 안정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 임업관측은 밤, 표고버섯, 대추, 뽕은감, 산채, 조경수의 단기 시장동향을 조사하여 발표
 - 농정동향은 KREI 논단,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농업농촌경제동향, 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농정소식을 확인
- 글로벌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중국농업정보, 북한농업정보, 해외곡물시장동향, 농축산물수입동향(FTA)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KRE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like '연구정보', '관측동향', '글로벌정보', etc.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several highlighted reports and news items. For example, a report titled '2018 살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개최' (2018 Meat Quality Improvement Policy Conference Held) is prominently displayed. Other sections include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s), '농정포커스' (Agricultural Policy Focus), '농촌경제' (Rural Economy), '현안분석' (Current Issues Analysis), '정기간행물' (Periodicals), and '관측정보' (Observation Information). The right sidebar contains '보도자료' (Press Releases), 'KREI논단' (KREI Forum),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Weekly Agriculture, Rural Industry, and Food Trends), and '채용공고' (Job Vacancies).



연구실에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일까요?



강대영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부패·공익침해 신고
1398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45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